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50p, 중고선가치수 182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50p(+0p, WoW), 중고선가치수는 182p(+1p, WoW)를 기록함. 지난주, 삼성중공업이 120,000급 Aframax shuttle 7척을 수주함. 2024년부터 인도될 예정임. 대우조선해양은 174,000CBM급 LNG운반선 1척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4년 3분기임. 현대삼호중공업은 Cido Shipping으로부터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함. LNG DF선으로 2024년 1, 2분기에 인도될 예정임. (Clarksons)

브라질 Log-In, 중국에 컨테이너선 2척 발주

브라질 Log-In이 중국 Zhoushan Changhang International Shipyard에 3,158TEU급 서브 파나막스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함. 선가는 총 8520만달러로, 납기는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임. (선박뉴스)

No end to port congestion crisis in sight, as backlogs hit record highs, says Clarksons

컨테이너 항만적체는 지난 주 최고 수준을 기록함. 지역으로는 중국, 미국 서부 항만에서 가장 심한 양상을 보이며, 건화물, 자동차 운반 시장에서 적체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anker rates keep firming with more expected to come

발틱유조선지수는 +65p WoW 상승하며 탱커운임은 9월 견조하게 유지됨. VLCC의 수요 증가로 선주는 운임을 높일 수 있던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Capesize bulker rates fall another 23% as commodity prices cool down

원자재가격이 조정받으며 Capesize bulker 운임이 2주 연속 하락함. Capesize 5TC는 금요일(22일) 전주대비 -23% 하락한 51,463달러/일을 기록함. (Tradewinds)

발주 늘고 선가 오르고

2021년 9월말 발주된 신조선은 9,810만DWT로 작년동기대비 +99% 증가함.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0월초 2009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인 150p를 기록함. (선박뉴스)